

순창군 문화관광도시 입지

골목문화 ·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등 행사 신설 구름다리 착수 등 올해 관광분야 105억원 투입

올해 순창군 문화관광 정책이 특
색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군 문화관광과는 올해 골목문화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신설하고 체계
산 270m 구름다리를 본격 착수하는
등 순창관광패러다임이 변모해 가
는 한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
다.

올해 순창군이 관광분야에 투자하
는 예산은 105억원 정도다.

순창군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뷰라
인 연결사업 등 굵직한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골목문화페스티벌 등
특목특는 관광프로그램이 잘 융합
된 특징이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면서 눈길을
끄는 신규 사업은 골목문화 페스티
벌이다.

순창군에 새로생긴 영화관과 미술

관을 활용해 점점 쇠퇴해가는 골목
에 문화를 융합해 쇠퇴해가는 골목
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1박 2일 간 지역 골목 등을 배경
으로 영상제, 미술품전시회,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한여름밤
의 페스티벌도 주목받는 문화행사
다.

순창읍 일품공원 야외무대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수제맥주 시음
및 판매행사, 음악공연 등이 진행
돼 한여름 밤의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9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13
회 순창장류축제도 올해는 순창만
의 색깔이 묻어나도록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여 순창의 관광을 한층
중요롭게 만든다.

주목받는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본
격화 된다. 순창강 체계산에 270m

구름다리를 만드는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은 풍동실협이 마무리 단
계로 올해 3월 본격 공사착공에 들
어갈 계획이다.

또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예술체험 문화마을을 조성
하는 섬진강 문화예술 다남길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이사업에는 섬진강 미술촌, 한옥
마을 경관조성, 강변예술원터, 편의
시설, 무인공방 작가작품 및 아트블
럭 체험작 전시 등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전북 1000리길에 선정된,
장군목길, 강천산길, 선비길에 대한
디자인과 홍보마케팅을 새롭게 진
행하고 뿔뿔어, 코레일 연계 관광정
책, 강천산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등
을 통해 순창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 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는 새로운 문
화프로그램을 확대해 관광과 문화
가 융합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면서 "앞으로도 순창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느낄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사 망치는 유해 야생동물 '특단책'

임실군, 전기울타리 설치 보조율 도내 첫 상향 조정 농가중심형 지원사업 박차

임실군이 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농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에
서는 처음으로 전기울타리 설치지원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농가중심
형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들
의 경작지 침입을 차단해 농작물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
기 위해 태양전지식 전기울타리 설치
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2억3천만원의 예산
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며, 보조율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10% 상향된 70%
를 지원키로 해 농가부담을 크게 줄여
주기로 했다.

1월 중 공고를 통해 시설 설치대상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시행 농가의 접수를 받아 2월 중에 지
원대상 농가를 선정,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매
년 수확기 및 동절기에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해보다 1억원 증가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 시 수렵장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해마다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큰 탓에 어려움
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서, 올해
는 전기울타리 설치 보조율을 과감히
높이기 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적극 추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중소기업 지원정책 합동 설명회 남원시 · 중기청 · 전북도 공동

남원시는 지난 12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라북도
와 공동으로 2018 중소기업 지원정책 합
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도,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전북지방우정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
원관련 18개 기관 및 남원·임실·순창
기업인 및 소상공인 참여로 이루어 졌
다.

각 기관별로 중소기업 육성정책, 정책
자금 지원계획,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
한 지원정책 설명에 이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상
담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정책수혜의 장을 만들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50억원 용자 지원
하고, 기업의 근로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참여하는 기업에 2,500만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성장기 올바른 생활습관 유도

최근 아동, 청소년들의 서구화된 식습
관과 오랜 좌식생활로 인한 운동부족
로 소아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소아 시
기의 비만은 성인시기까지 이어지는 경
우가 많으며, 성장기에 형성된 생활습관
은 평생건강을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
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
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비만
으로 인한 질병예방을 돕기 위해 2월 21일
까지 관내 지역아동센터 18개소를 대
상으로 건강관리사업 '내일은 건강왕!' 프
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상반기 19개소, 하반기 23개소가 참여하
여 체성분(근육량, 체지방량, 발달점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등 개인별 맞춤형 검사와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내일은 건강왕!' 프로그램
의 결과를 토대로 과체중, 비만 아동 비
율이 높은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전
라북도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남원의
료원과 연계하여 대·중·후군 정밀검사
등 강도 높은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군민생명 지키는 파수꾼 역할 특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군민
들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특
출히 해내면서 성과를 인정 받고 있
다.

군은 최근 영하의 혹한에서 실내화
를 신고 얇은 한자복 차림으로 순창읍
내를 헤매시는 노인을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들이 직접 거리
로 나가 수색 끝에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 시켰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김동연 강운순 관제사들이
다.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5시경 80세
노인이 길을 잃고 순창읍내를 헤매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경찰 상황
실에 신고하고 노인의 이동방향을
CCTV를 통해 모니터링 했다.

노인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
지대로 들어가자 관제사 2명중 1명은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계속
찾고 다른 한명은 직접 현장으로 출동
해 헤매고 있는 노인을 찾아 경찰에
인계했다.

노인은 차매를 환자로 밝혀졌고 경
찰에 의해 무사히 집으로 귀가조치 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군민들
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 말고도 지난해 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치매노인 3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 1명, 관제사
8명, 공무원 1명이 근무 중이며 그 동
안 14회 이상의 화상추적 훈련을 통해
CCTV의 설치 위치, 촬영 방향 및 지
리적 여건 등을 익히고 이동 예상 경
로 등을 예측하는 관제 훈련을 실시해
유사시 대응태세를 완벽히 갖추고 있
다.

군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는 군민
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최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통합관제센터는 순창군
청 2층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 4월 10
일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어 오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의 사계절, 꽃 향기로 채운다

군,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사업비 10억5000만원 투입 대대적 경관조성사업 돌입

앞으로는 사계절 내내 꽃과 함께하
는 임실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실군은 올해 경관조성사업에 총
10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도시
숲 등 경관조성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비사업을 시작으로, 가로수 조
성사업과 계절꽃 식재 등 대대적인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경관조성사업은 보행자와 운전자에
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사회
적인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활용
을 위해 생활권 주변을 녹색공간으로
바꾸는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경관조성사업 대상은
육정호 섬진강 자전거 길 3km로 기후
와 지역여건에 맞게 열매숲을 조성한
다. 또한 오수의견 설화로 잘 알려진



임실군은 경관조성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비사업을 시작으로, 가로수 조성사업과 계절꽃 식재 등 대대적인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사면 김개인 생가에서 이어지는 오
수천변길 2km구간을 왕벚나무 가로수
길을 만들어 간다.

군은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곳곳에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시가지 꽃박스와 화단에
페튜니아, 웨이브페튜니아 등 맑은 색
감을 가진 꽃과 수직적인 꽃 등 다양
한 꽃을 배합, 식재할 예정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언제나 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고양시키고, 살고
싶은 임실로서의 녹색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
계절 꽃이 만발한 임실이미지를 대내
외적으로 적극 알려 임실을 찾는 관
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임실을 만들어 가겠
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관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